서양고지도를 활용한 '동해' 전시 콘텐츠구성 방안

Contents Construction of 'Sea of Korea' Using European Antique Maps

오일환*, 이승수**
경희대학교 학부대학*, 한양대학교 국문학과**

Il-Whan Oh(ohil@khu.ac.kr)*, Seung-Su Lee(woohabin@hanmail.net)**

요약

고지도는 뛰어난 회화성 뿐 아니라 과학성을 가진 정보기록의 문화유산이다.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역사지리학에서 과거 지역의 공간복원이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다. 그러나 고지도를 전시에 활용한 콘텐츠 개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학습프로그램과 융합된 고지도에 대한 콘텐츠연구는 거의 없으며 특히 서양고지도를 활용한 동해 관련 전시콘텐츠 구성이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동해가 나타난 서양고지도를 전시에 활용하기 위한 교육학습 콘텐츠 구성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영토와 영해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성과를 시각화하여 체계적인 정보로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동해에 대한 관심과 동해문제에 대한 재인식의 기회를 마련하고 서양고지도를 박물관이나 문화시설에서의 전시와 교육적 학습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콘텐츠 구성과 사이버 전시콘텐츠 구축 및 이를 활용한 역사교육 학습의 기본모델을 제공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 중심어 : | 서양고지도 | 동해 | 박물관 전시 | 콘텐츠 구성 |

Abstract

Antique maps are a cultural heritage of recorded information with distinguished pictorial and scientific value. They have been utilized in a variety of academic fields, especially in historical geography, as the most fundamental data to look into the restoration of space or historic changes of area from the past. However, there is no sufficient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ntents using antique maps in the exhibitions. Furthermore, there is almost no content research on the antique maps integrating the academic programs in museums or art galleries. In particular,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research on the approaches to configure or utilize the exhibition contents related to the Sea of Korea using European antique maps.

This study examined the construction of educational contents in order to use the European antique maps including the Sea of Korea as well as Korea itself in the exhibi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may visualize the results of academic research on the territory and territorial waters of Korea and extensively acknowledge them as scientific data all over the world. Furthermore, this study aimed to create the opportunity to increase interest in the Sea of Korea and recognize it again, to find the contents construction to use European antique maps as academic data for exhibition and education in museums or cultural facilities and to provide a basic model for history education using antique maps.

■ keyword : | European Antique Maps | Sea of Korea | Exhibition in Museums | Contents Construction |

* “본 연구는 2009년도 경희대학교 교비특별연구지원에 의한 결과임”(KHU-20090679)

접수번호 : #100526-002

접수일자 : 2010년 05월 26일

심사완료일 : 2010년 06월 21일

교신저자 : 오일환, e-mail : ohil@khu.ac.kr

1. 서론

동해는 우리 민족에게 삶의 원천이며 역사의 무대였다. 역사적으로 동해는 우리 민족에게 방위개념을 넘어 험난하고 거친 파도를 헤쳐 나가는 데 있어 동력을 제공하는 정신적 지주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근대 이후 이러한 동해의 위상은 적지 않게 흔들렸다. 일본 제국주의 세력이 우리의 국권을 침탈하면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은 동해의 명칭표기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동해표기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은 두 나라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미래이다. 지도의 변천은 두 나라 사이의 이러한 역사 갈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이다.

지도는 지리적인 현상들을 일정한 비율로 줄여서 압축된 기호에 따라 평면에 구성해 놓은 그림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도에는 천체의 물리적 사실 뿐 아니라 인간생활의 정치적 열망과 권력 그리고 영토의 소유와 지배관계 등이 나타나 있으며 지도제작 당시의 세계관이나 이념 그리고 상상력 등이 다양한 형태로 담겨있다. 이 뿐 아니라 지도는 예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의 권위를 상징하였다. 국가는 지도 제작을 정보의 상징으로 관리하여 왔으며 유통을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이처럼 지도는 과거와 미래를 조망해 볼 수 있는 종합적이고 역사적인 결과물을 함유하고 있는 문화의 척도이다.

특히 서양에서 제작한 고지도에는 신화와 전설, 여러 자연현상들, 탐험이야기, 제작 당시의 국가관계 등 문화적, 역사적 내용들이 한 편의 그림처럼 구성되어 있고 사람과 세상에 대한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고지도는 국가의 경계와 지역의 공간변화를 살펴보는 가장 기초적인 역사, 지리학적 자료이며 우수한 회화적 가치를 지닌 기록유산일 뿐 아니라 다양한 과학적 지식을 함유하고 있는 시각자료이다.

국내의 서양고지도 연구는 고지도 전문박물관의 건립 이후 동해 명칭표기의 국제회의 및 학술세미나 등의 연구 활동과 특별전시회 등을 개최하면서 국내외로부터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하여 동해 명칭표기는 지속적인 학술연구에 힘입어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다[1]. 그러나 고지도 자료의 구득과 접근의 어려움으

로 서양고지도를 전시에 활용한 콘텐츠개발은 아직 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동해 표기의 고지도를 나열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이외에 지리교과 수업에 활용한 연구는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지도수업과 관련된 수업모형 및 학습자료 개발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고지도를 활용한 연구는 항토사 학습이나 국토인식의 제고를 위한 지리학습과 고지도를 소개하거나 해석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2].

그러나 고지도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3]. 또한 고지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박물관이나 문화시설의 전시를 위한 콘텐츠 개발은 물론 서양고지도를 활용한 전시콘텐츠 및 전시와 연계된 학습콘텐츠 구성에 대한 연구와 논문은 더욱 찾아 볼 수가 없다.

박물관에서의 전시는 영토, 경계, 외교 갈등 등 무거운 국가 현안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기 보다는 생존의 현장, 수많은 이야기의 배경, 제의와 기원의 대상, 상상 속에서 빚어진 세계로서 다채로운 동해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의 공간인 동해를 다시 생각하고 미래를 설계하여야 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중국 및 일본과 영토경계의 확정에 대한 역사문제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지도에 대한 연구와 이의 전시가 더욱 중요하다. 이에 체계적인 전시콘텐츠 구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에서 서양고지도를 박물관이나 문화시설에서의 전시와 교육적 학습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콘텐츠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경희대학교 해정박물관(<http://oldmaps.khu.ac.kr>)에 소장하고 있는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우리나라와 동해 표기의 고지도를 주요대상으로 한다. 또한 동해 관련 문헌·사료 및 사진·기타 자료 그리고 기존의 전시 및 학술적 내용을 담은 도록 등을 통하여 동해에 대한 전시 콘텐츠를 구성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서양고지도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영토와 영해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성과를 전시하기 위한 콘텐츠 구성과 동해에 대한 대중적 접근 및 재인식의 기회를 마련하고 미래의 역사학습의 교육방향을 설

정하는 인문학적 전시콘텐츠의 기본모델을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동해표기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고지도 전시콘텐츠를 정리할 수 있고 당시 우리나라의 세계적 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II. 서양고지도의 우리나라와 동해에 대한 기본 분석

1. 전시콘텐츠에 대한 기본구성

서양 고지도는 우리나라에서 접하기 쉽지 않은 자료이다. 따라서 자료에 대한 접근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서양고지도를 활용한 전시콘텐츠의 구성범위는 기존의 연구 자료와 출간된 관련 전시자료 도록 및 학습자료 등을 활용하여 전시콘텐츠를 구성한다.

이에 먼저, 서양고지도에 대한 기본적 개념과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의 척도인 지도라는 대주제를 설정하고 서양의 지리인식, 고지도의 해석과 읽기, 지도 제작자와 국력의 상징인 지도 등의 소주제로 구성한다. 기본적 텍스트를 바탕으로 고지도에 표현된 역사적 사실과 지도 제작당시의 세계관을 비롯한 우주관, 그리고 신화와 전설, 상상의 이미지 등의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에 대한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고지도와 조화롭게 공간을 구성한다. 이밖에 지도의 종류와 의미, 지도 제작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투영법의 발전, 지도학의 발전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전통적 지리인식에 대하여도 구성한다

둘째, 형태학적인 연구로서 서양고지도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특징유형과 표기내용을 분류하여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서양고지도에 우리나라가 그려지고 표현되는 과정을 소개하면서 형태나 국호의 변화에 대한 지리정보 뿐 아니라 세계의 무대에 등장하는 시대적 변화와 인식을 살펴 볼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서양고지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동해 표기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구성한다. 코리아해 대한민국이라는 대주제를 설정하고 동해 명칭이 등장과 종류 및 변화를 고지도 자료에 근거하여 구성한다. 또한 동해의 지리적 특성, 문헌과 고지도에 나타난 역사적인 변천, 동해명칭

의 국제표준화 등에 대하여 기본적인 텍스트를 시각적인 자료와 함께 구성한다. 이는 동해와 관련된 서양고지도와 문헌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성과 학술적 축적으로 동해학이 창출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넷째, 동해표기 이외에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공간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동해 지킴이 울릉도와 독도, 대륙의 관문 간도, 남해의 눈 제주도로 나누어 국가 국가의 성립에서 나타난 국경의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인 개념에서의 영토의 경계와 삶의 경계에 대한 고지도와 시각자료를 이용하여 전시 콘텐츠로 구성한다.

이와 같이 서양고지도를 이용한 전시콘텐츠의 구성은 우리나라에 대한 지리적 공간인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 뿐 아니라 동해표기에 대한 역사적 이해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

2. 서양고지도의 형태적 특징

지도는 공간정보를 평면에 옮긴 그림이다. 이에 지도는 보는 것이 아니고 읽는다고 한다. 서양에서는 그리스 중심의 신화적 세계관 영향에 따라 지구를 기다란 기둥형, 둥그런 원반형, 납작한 타원형 등으로 인식한 지도가 제작되었으며 중세시대에는 종교적 유일신 세계관의 영향으로 교훈과 권위를 상징하는 추상적인 지도가 제작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항해시대 이후 탐험과 상업세력이 확장하면서 지리지식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정확한 지리정보가 전달되기 시작하였다.

서양 고지도에는 지리정보 뿐 아니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지도명칭, 제작자, 제작년도, 발행지 등을 기록한 칼투쉬를 화려하게 채색하거나 지역의 자연물과 원주민 혹은 신화 등을 예술적으로 장식하고 있다. 이외에 지표상의 실제 거리와 지도상에 나타난 거리의 비례를 나타내는 축척이 있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의미하던 나침반이나 동서남북의 방향을 나타내는 방위가 화려하게 그려져 있다.

그림 1. 서양고지도의 특징과 지도제작자 구성

15세기이후 서양에서는 국가나 가문을 중심으로 무역과 탐험을 위하여 여러 형태의 지도가 제작되었다. 포르투갈, 에스파니아,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의 지도학자들은 중세의 종교적 세계관에 의한 지도제작을 탈피하고 고대의 천문학과 지리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재조명하면서 새로운 지도를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지도제작자들은 천문학과 항해기술의 발달에 따른 지리 지식을 바탕으로 점차 과학적인 관측기구와 정밀한 지도제작 기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지리정보를 그렸다. 또한 인쇄기술의 발달로 통상과 종교 활동에 필요한 새로운 지리정보를 종합하여 지도를 제작하였으며 여러 가지 형태의 정밀한 지도를 대량으로 제작할 수 있게 되어 일반인에게 널리 보급하였다.

서양의 고지도 제작자는 네덜란드에서 메르카토르를 비롯하여 오르텔리우스, 블라우 등이 활동하였고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왕립과학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상송을 비롯한 드릴, 보공디 가문에 의해 지도와 지도첩이 제작되었다. 영국은 최대의 해양국으로 성장하면서 스피드와 물의 지도를 바탕으로 여러 형태와 식민지 확보를 위한 지도제작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처럼 정확한 지리정보를 담고 있는 지도제작 수준은 국력의 상징이 되었다[4].

3. 서양고지도의 우리나라 등장과 형태

우리나라는 중국을 왕래하던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하여 서양에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나 서양의 상인이나 탐험여행가 그리고 선교사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한 16세기 중반의 서양고지도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초창기 형태는 대체로 중국 동북부에 편입되었거나 혹은 매우 불완전한 모양으로 중국, 일본과 함께 등장한다. 서양의 항해가와 선교사의 지리정보에 근거하여 제작

된 지도에 우리나라는 16세기 말부터 남북으로 역삼각 형태의 길쭉한 섬, 혹은 둥그런 형태의 섬, 부정형 사다리꼴형태의 섬 등으로 다양하게 그려졌으며 심지어 18세기 초까지 섬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17세기 초부터 서양의 선교사들은 중국지도를 제작하기 시작하지만 우리나라는 17세기 중엽이후 여러 형태의 반도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1653년 네덜란드 상선의 하멜 일행 36명이 제주도에 표착하여 13년간 억류되었다가 8명이 탈출하여 일본 나카사키를 거쳐 네덜란드로 돌아간 후 저술한 ‘하멜 표류기’(1668)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더욱 구체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 후 18세기 초 중국에서 머물던 선교사들이 강희황제의 명에 의하여 중국 전역을 측량하여 ‘황여전람도’(皇輿全覽圖, 1719)를 제작하였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지리정보도 18세기 중엽 이후부터는 독립적이면서도 현재와 매우 비슷한 형태의 반도로 그려지기 시작한다.

그림 2. 대항해가의 지리발견과 우리나라의 형태구성

우리나라의 명칭표기는 16세기 후반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에서 제작한 지도에 Conray, Conrai, Comrai, Corea 등으로 표기되지만 17세기 초반에는 Corai나 Corei 등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지도는 Coree, 영국에서 제작된 지도는 Corea 혹은 Korea, 독일 등에서 만들어진 지도는 Korea로 표기되었다. 또한 중국이나 일본식의 고려(Caoli), 조선(Chaosien 혹은 Tioxem) 등의 발음을 알파벳으로 표기한 지도가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국호표기는 17세기 중반 이후에 Corea와 Coree 표기가 많지만 18세기 중반에는 Korea의 표기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해양에 대한 국가의 힘이 지도제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5].

4. 서양 고지도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형상

1) 서양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동해표기

서양고지도에 우리의 동쪽 바다는 1600년대 초반부터 Oriental Sea, Mer de Coree 또는 Sea of Korea라는 명칭으로 표기되어 왔다. 16세기 초까지 인도양과 태평양을 포함하는 동양은 Ocean Oriental, Mer Oriental, Petite mer Oriental, Oceanus Chinensis 등 다양한 언어로 표기되었다.

그러나 17세기 초부터 항해와 지리지식의 발달로 포르투갈과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지도에는 Mar Coria, Mare di Corea로 표기되었다. 18세기에 들어 서양세력은 동양으로 무역로와 교역의 확대를 위하여 탐험과 선교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바다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였다. 이로 인하여 동해는 Mer de Coree, Sea of Corea, Sea of Korea, Corean Sea 등 나라이름으로 표기되기 시작하면서 1750년대 중반이후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Zee of Corea, Corea gulf, Corease Zee, Meer von Corea, Mer di Corea, G.dl Corea 등 10여 개가 넘는다.

18세기 초 프랑스에서 제작된 지도에는 Mer Orientale ou Mer de Coree가 표기되고 있는데 이는 점차 동해를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부터는 동해가 Gulf of Corea나 혹은 Mer de Coree와 Mer du Japan이 함께 표기되기도 한다. 19세기 중반 일본이 서양과의 활발한 교류와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일본해의 단독표기가 점차 확대되었다[6].

그림 3. 동해에 대한 인식과 동해표기의 변화구성

2) 동해의 지킴이 울릉도와 독도

서양고지도에 나타난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은 여러 가지 형태로 표기되고 있다. 이는 북방향로를 개척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항해를 하던 선박이나 탐험가들의 지리정보에 의존하였기 때문이다.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표기 변화를 살펴보면 첫째로, 서양에서 18세기 초에 제작된 고지도에 울릉도는 판링타오(Fan ling tao), 독도는 찬찬타오(Tchian chan tao)로 표기되었다. 중국식 발음의 찬찬타오는 우산도의 우(于)자를 천(千) 혹은 자(子)로 잘못 쓰면서 천산도(千山島) 혹은 자산도(子山島)로 불리게 되었다. 이러한 표기는 프랑스의 당벨(J.B.B.D'Anville)이 제작한 '신중국지도첩(1737)'의 31번째의 '조선왕국전도'(Royaume De Coree)에 처음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는 다즐레(Dagelet)표기의 울릉도이다. 루이 16세의 명을 받은 항해가이며 탐험가인 프랑스의 해군 대령 라 페루즈(La Perouse, 1741-1788) 백작은 부술(Boussole)호와 아스트롤라베(Astrolabe)호를 이끌고 1787년 북방향로를 탐험하기 시작하였다. 함대의 천문학자 다즐레가 처음으로 울릉도를 발견하였는데 자신의 이름으로 표기하고 좌표를 기입하여 서방 세계에 최초로 울릉도의 좌표위치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독도에 대한 기록은 없다.

D'Anville, 1737

La Perouse, 1787

Poggio, 1895

그림 4. 울릉도와 독도의 표기형태

세 번째는 아르고너트섬(L.Argonaut)표기의 울릉도이다.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콜넷(James Colnett)이 1791년 동해안을 탐험하면서 울릉도를 선박의 명칭인 아르고너트로 표기하였다. 이로 인해 울릉도는 다즐레와 아르고너트 표기의 서로 다른 두 개의 섬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1840년 일본에 머물던 독일인 의사 지볼트(Siebold)가 울릉도를 Dagelet((Matsusima), 독

도를 Argonaut(Takesima)로 혼합해서 기록하여 울릉도와 독도표기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리고 1856년에 미국의 페리(Perry)제독은 다즐레, 아르고너트, 호넷 등 3개의 섬으로 표기하는 혼란이 있었다.

네 번째는 독도에 대한 동도와 서도 표기이다. 러시아 제독 푸자친(Putiatin) 함대의 팔라다(Pallada)호를 이끌고 1854년 처음으로 독도를 측정하였다. 동도를 마날라이암(Manalai rocks), 서도를 올리부차암(Olivutsa rocks)으로 표기하면서 정확한 좌표를 기입하였고 독도를 상세하게 묘사한 그림을 남겼다.

다섯 번째는 호넷섬(Hornet islands)으로 표기된 독도이다. 1855년 영국 군함 호넷호의 해군 중령 파시드(Charles C. Farsyth)가 독도의 정확한 좌표와 지형을 수로지에 기록하였다.

여섯 번째는 가장 보편화되었던 리앙꾸르암(Liancourt rocks) 표기의 독도이다. 1787년 프랑스의 라 페르즈 선장의 리앙꾸르호가 발견하여 정확한 좌표와 함께 리앙꾸르암으로 기록하였다. 또한 1858년 러시아의 팔라스(Pallas)호는 독도를 리앙꾸르암으로 표기하였다. 또한 '중국수로지' 제2판(1858년)에서는 독도를 호넷섬으로 표기하였으나 제3판(1861년)에서는 리앙꾸르암으로 수정하여 표기하였고 아르고너트와 다케시마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록하였다. 이에 서양에서 제작되는 지도에 독도는 리앙꾸르암이라는 이름으로 정착되어 갔다. 그러나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에서 독도를 竹島로 표기하고 시마네현에 편입하면서 영토분쟁을 일으켰다[7].

3) 남해의 눈 제주도와 대륙의 관문 간도

제주도는 하멜(Hamel, H.)의 표류기록(1668년 출판)에 의하여 켈파트(Quelpaert)로 서양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초창기의 서양고지도에는 도적섬(Ladrones: Teixeira, 1595년)을 비롯하여, 풍마(Fungma) 표기지도(Bleau, 1655년)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후 점차 켈파트가 등장하면서 풍마와 켈파트가 따로 떨어져 그려지는 등(De Fer, 1703년) 지리적인 혼동이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 표기는 이후 제주, 대정, 정의 등의 지명으로 표기(당빌, 1737년)되었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제주해역을 측량(La Perouse, 1787년)하면서 점차 켈파트로 정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8].

한중간의 경계선은 서양선교사들이 중국 전역을 측량하기 시작하면서 지리적 경계인식이 표면화되었다. 간도지역은 역사적으로 고구려와 발해의 지역이었으나 중국에서 청나라가 건국되면서 출입을 금지하는 봉금지역이었다. 특히 백두산정계비(1712) 건립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의 경계인식이 고착화되었다. 중국 청나라는 장성(長城)이나 유조변장(柳條邊牆)의 경계 인식이었으나 점차 백두산을 비롯하여 압록강과 두만강의 지리적 경계개념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지리적 경계가 아닌 민족적 문화경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뒤 알드가 '양국은 비거주지역을 설정하고 지도에 점선으로 표기'한다는 기록이 있으며 당빌의 '조선왕국'(1737) 지도에는 압록강과 두만강 북쪽에 경계선이 설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18세기 서양에서 제작된 지도의 대부분은 압록강과 두만강 북쪽에 한중간의 경계선이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 한중경계선은 제국주의의 팽창과 중국의 세력 확장으로 민족적 문화경계가 아닌 백두산과 압록강, 두만강 중심의 국가 경계인식이 반영된 지도가 대량으로 제작되기 시작하면서 경계선에서 국경선으로 고착화되어 갔다[9].

그림 5. 제주도와 간도에 대한 전시콘텐츠 구성

III. 동해표기 전시콘텐츠의 구성방안

1. 동해표기 전시콘텐츠의 역사적 배경

우리의 동해는 한국, 중국, 일본, 서양의 여러 지도에 다양하게 표기되어 있다. 동해표기의 형태와 변천은 다양한 관점 및 인식의 변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일본해는 1602년 이탈리아 선교사 마테오리치(Matteo Ricci, 1552-1610)가 제작한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

圖)에 처음 등장한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유럽에서 확립된 이후 일본해라는 명칭이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양에서 분리된 해역은 그 해역을 격리하는 주요한 열도나 반도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태평양에서 일본 열도에 의해 분리된 해역이 일본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에 대하여 일본해가 아닌 동해명칭의 표기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한다. 이에 고지도에 등장하는 동해의 다양한 표기를 검토하여 동해표기의 변화를 도출하고, 나아가 향후의 방향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10].

먼저, 국제수로기구의 창립인 1919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의 주요 일간지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동해표기 문제와 연관된 주요 자료를 검색하여 이를 년표로 정리한다. 시원하게 펼쳐진 동해 바다의 이미지를 배경으로 사건중심의 시대구분을 한다.

두 번째는 바다의 명칭표기를 정하는 국제수로기구에 대하여 일반적인 현황을 제시한다. 국제수로기구(IHO)는 영국 런던에서 국제수로회의를 개최하면서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등 18개국의 수로 전문가들이 모여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각 국에서 제작된 해도를 통일하고 수로사업에 관한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창립하였다.

국제수로기구는 1921년 모나코에서 국제수로국이 실무 담당기구로 만들어진 후 1970년에 확대 발전하여 현재 70여개의 국가가 참가하고 있으며 ‘해양과 바다의 경계’는 해도제작의 국제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7년 국제수로기구에 가입한 후 1962년 제8차 국제수로회의부터 참가하였고 1969년 26번째의 회원국이 되었다.

그림 6. 바다 명칭표기와 국제수로기구 구성

세 번째, 동해표기에 대한 명칭이 일본해로 고착화하는 과정과 국제적 지명표준화에 대하여 살펴 본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국권침탈로 우리나라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자 일본은 동해의 명칭을 일본해(Japan Sea)로 등록하였다. 그리고 국제수로국이 세계 해양의 경계 및 해양명칭에 관한 국제기준으로 ‘해양과 바다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 S-23)(1929)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면서 국제적으로 고착되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가입을 계기로 국제수로기구와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SGN) 및 유엔지명전문가회의 등에 구체적으로 동해지명표기의 수정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모나코에서 열린 제16차 국제수로기구 총회에서 ‘해양과 바다의 경계와 명칭’(Names and Limits of Oceans and Seas)제4차 개정판 발간(2002년)에서는 156개의 바다명칭과 경계가 수록되었으며 아문센해를 비롯한 60개의 바다에 새로운 명칭이 표기되었다. 그러나 동해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첨예한 대립과 논란을 일으키자 정치적인 이유로 아무런 표기를 하지 않고 보류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네 번째는 동해명칭표기에 대한 이해를 도출하기 위하여 세계 지도상의 바다의 명칭표기를 방위표기(북해: 동서남북의 방위 표시를 바다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독일과 영국 사이의 바다), 국가표기(그린란드해, 노르웨이해: 두개 이상의 국가 사이에 위치한 국가의 명칭을 모두 사용, 노르웨이와 그린란드 사이의 바다를 그린란드 쪽에서는 그린란드해로 노르웨이 쪽에서는 노르웨이 해로 각각 표기), 대륙중심표기(오호츠크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모잠비크해: 그 바다의 서쪽에 있는 지역의 지명을 바다이름으로 표기, 러시아 오호츠크의 동쪽에 있는 바다 이름은 오호츠크해, 오키나와 서쪽에 있는 중국의 동쪽바다는 동중국해, 필리핀 서쪽에 있는 중국 남쪽바다는 남중국해, 아프리카 모잠비크 동쪽바다는 모잠비크해로 표기), 발견자 표기(베링해, 로스해, 바렌츠해, 아문센해, 솔로몬해: 바다의 명칭에 첫 발견자의 이름을 사용), 특성표기(흑해, 황해, 홍해: 바다의 특성이나 색깔을 바다의 명칭으로 사용) 등의 사례를 제시한다.

2. 동해표기의 전시콘텐츠 구성방안

1) 고문헌에 등장하는 동해

우리나라에서 동해에 대한 기록은 광개토왕릉비문에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문집 등의 고문헌과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 등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각종 다양한 고지도에 등장하고 있다. 이를 문헌자료와 함께 고지도를 제시하며 간략한 해제를 부기하여 역사적인 지리인식을 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서 제작된 고지도와 문헌에 나타난 동해 관련 자료를 비교 전시하는 콘텐츠로 구성한다. 예를 들면 일본 임자평이 제작한 ‘삼국접양지도’(1785)와 ‘일본번계약도’(1809) 그리고 중국의 ‘사해화이총도’(1613) 등의 고지도를 이용하여 동해에 대한 지리적인 이해를 인식시킨다.

그림 7. 우리나라와 일본 및 중국문헌에 나타난 동해

2) 동방해(Mer Orientale ou Mer de Coree)

15세기 중엽의 서양 고지도에는 동방해가 표기되었다. 발트제뮐러의 세계지도(Waldseemüller, M., 1507년), 보르도네의 세계지도(Bordone, B., 1528년), 뮌스터가 제작한 세계지도(Münster, S., 1540년) 등에는 동방해가 표기된다. 당시의 동방해는 마젤란의 세계일주 이전의 지리 지식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사이의 특정한 바다에 부여된 명칭이라기보다는 지중해 동쪽에 위치한 거대한 바다인 동방의 큰 바다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세계의 대양이 동방해와 서방해(Mare Occidentale)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데 오늘날의 인도양과 태평양을 함께 아우르거나 태평양을 의미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동방해가 동해라는 특정한 명칭의 표기는 드릴의 아시아지도(De L'Isle, G., 1705년)에 동해가 동방해 혹은 동해(Mer Orientale ou Mer de Coree)라고 표기하고 있어 동방해가 동해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동해(Sea of Korea)

17세기 초 포르투갈의 고딩유가 제작한 아시아지도(Godinho, M., 1615)에 Mar Coria가 표기되는 등 새로운 명칭으로 표기되기 시작한다. 이탈리아에 정착하여 해도집을 제작했던 영국인 더들리경이 제작한 지도((Sir Dudley, R., 1647년)에도 동해가 Mare di Corai로 표기되어 있다.

이후 18세기에 이르기까지 동양에 대한 유럽인들의 탐사와 무역의 확대에 인하여 프랑스와 영국의 지도제작은 독일과 덴마크,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프랑스의 지도 제작자인 드릴(De L'Isle, G.), 당빌(D'Anville, J. B.), 드 보공디 가문(De Vaugondy, R.), 벨링(Bellin, J. N.) 등에 의하여 동해에 Mer de Coree 표기의 고지도들이 본격적으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영국에서 제작된 고지도들은 동해에 Sea of Korea 혹은 Korean Sea로 표기하여 18세기 후반까지 제작되었다.

4) 동해만(Gulf of Korea)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동해는 연해로서의 바다가 아닌 육지로 둘러싸여 있는 만으로 인식한 Gulf of Korea로 표기되기 시작한다. 당시의 지도제작자들은 일본이나 러시아 세력의 강성에 따라 동해에 일본해의 표기가 등장하면서 제주도 근처에 동해만이 표기되고 있다. 영국의 새뮤얼 던은 아시아 지도(Dunn, S.)에서 동해의 명칭을 Gulf of Korea와 Korean Sea로 표기하고 있다. 이처럼 동해에 새로운 지리지식이 수용되면서 동해 명칭이 변화하였다.

5) 동해(Sea of Korea) 와 일본해(Sea of Japan)

마테오리치의 곤여만국전도(1602년)에 일본해가 처음 한자로 쓰인 이후 일본은 영국과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와 활발한 교류로 점차 세력이 확장하면서 일본해

의 표기가 증가되었다.

18세기 중반이후 일본은 서양과의 교류와 개항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지도가 국제사회에서 대량으로 유통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19세기 중반이 되면서 동해와 동해만은 제주도 남쪽바다를 포함하는 동중국해나 원산만으로 밀려나고 동해상에는 일본해만 남게 된다. 비록 동해의 명칭을 우리나라 쪽은 동해, 일본 쪽은 일본해로 표기하는 고지도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동해 표기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11].

그림 8. 동해 표기의 여러 형태

3. 동해의 인문학적 전시콘텐츠 구성 방안

동해표기를 활용한 전시콘텐츠 구성 이외에 우리의 생활과 역사의 공간인 동해에 대한 인문지리학적인 전시 콘텐츠의 구성도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문화적 의미에서 공간은 인간의 흔적이며 역사와 문학으로서 완성된다. 동해는 우리의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삶의 무대이다. 이에 지리 공간으로서의 동해에 대한 인문학적 전시콘텐츠 구성방안을 모색한다[12].

먼저, 우리의 선조들의 동해에 대한 지리적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토의 지세와 지형 그리고 백두산과 동해의 관계를 고지도와 고문헌 자료로 구성한다. 국토 지세에 대한 조망은 주변공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이며 지도제작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된다. 이에 백두산과 백두대간 그리고 한라산과 대마도까지 포함하는 전통적 국토관은 동해를 음양이 갖추어진 완전한 세계를 이루기 위한 공간지리적인 대상으로 인식하였음을 강조한다.

둘째, 국가의례의 대상이었던 동해신에 대하여 지리지와 사대부 관료들의 시와 기우제문 등의 문헌을 바탕으로 동해신사, 동해묘 중수비, 적주동해비 등을 이용하

여 구성한다. 이는 의례를 통한 국가적인 상징을 통하여 동해에 대한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셋째, 동해는 서민들의 생활 터전이었고 삶에서의 신앙과 민속의 대상이었다. 국가의례에 등장하는 권위적이고 남성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어민들이 섬기는 매우 구체적인 여성성의 동해신은 다양한 설화와 민간의례와 함께 전승되어 왔다. 영등신이나 팔령신, 해신당, 해랑당, 진이서낭당 등 어민들의 기원과 소망의 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별신굿이나 단오제 등을 비롯한 풍어와 안녕을 기원하는 민간의 신앙에 대하여 구성한다.

그림 9. 동해의 인문학적 전시콘텐츠 구성

넷째, 동해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그리고 서양과의 문명교류와 소통의 공간이며 갈등과 충돌의 장이었다. 한일간의 고대항로와 함께 16세기의 임진왜란이나 18세기의 서양 선박의 출현은 조선왕조의 국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한일간의 고대 설화에 나타난 문화 교류와 문화 유적 등은 문명의 교류와 이동을 통하여 다른 문명의 세계와 연결되는 열린 공간이었다.

그러나 한일간의 문화적 이질감에 대한 갈등과 충돌이 문화 유적과 설화에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서양 선박의 출현으로 동해를 비롯하여 정치적인 갈등과 충돌로 국권의 상실까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문학 작품에 나타난 동해의 형상이다. 동해에 대한 수 많은 시문에는 다채로운 풍광과 어민들의 미세한 삶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리고 금강산과 울릉도를 바라보는 이의 굳건하고 호연한 기상의 표현에서 거칠고 드센 풍광을 볼 수 있으며 제도과 관습의 편견으로 타고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의 답답함을 비롯하여 동해를 거울삼아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동해안에 산재한 역사 유적이나 명승지에 대한 인문학적인 구성으로 동해와 어우러진 국

토인식의 공유점을 찾아내는 콘텐츠를 구성한다.

그림 10. 동해의 관광유산 전시콘텐츠 구성

4. 동해표기 전시콘텐츠의 활용방안 및 과제

동해는 우리 민족에게 삶의 현상이었고, 역사의 무대였다. 앞으로 서양고지도도를 활용한 '동해' 표기에 대한 다양한 전시콘텐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과 과제를 살펴보면

첫째, 학술적으로 동해연구는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장기적으로 동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사적인 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물론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연구방향 및 방법을 도출한다. 동해에 관한 학문적 관심을 모으고, 각각의 영역에서 지엽적으로 이루어지던 연구를 동해학으로 구성하는 계기를 창출하여야 한다.

둘째, 문화적 차원에서 동해가 지니는 역사적 함의를 대폭 증대할 수 있도록 동해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하는 전시회, 다큐멘터리, 교육용 영상물 제작 등과 연계한다. 동해는 풍부한 사연과 세월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명하고 재구성하고 홍보하고 재생산하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에 동해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적 함의를 제시하여 국민들의 관심도와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셋째,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동해 표기문제에 대해 논리적인 대응방법을 마련하여 장기적 전략을 마련한다. 이에 국가와 대학, 정책과 학술사이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

넷째, 역사적 차원에서 남북의 협력과 역사 인식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다. 동해(독도 포함)는 남북 공동의 영역이자 관심사로서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야 한다. 이에 남북간 동해관련 공동연구, 정책보조를 통한

협력대응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를 민족정서의 융화라는 효과로 나타나게 한다.

다섯째, 특정지명에 대한 분쟁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영국해, 독일해, 덴마크해 등으로 불리던 바다가 해당 국가간의 합의에 의하여 북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를 근거로 국제사회에서 일본해 단독표기의 부당성을 알리고 세계의 주요언론 및 지도 제작사, 백과사전 출판사를 비롯하여 인터넷을 통한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홍보한다.

여섯째, 연구성과와 전시콘텐츠 자료를 출판물(인쇄물 및 전자자료)로 제작하여 교육 및 학술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학술적인 연구 성과와 정보로 활용한다. 또한 대표적인 고지도도를 활용한 전시콘텐츠는 교육적 차원에서 청소년 및 시민들의 동해역사에 대한 교육적 자료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시행하거나, 문학연구자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양질의 스토리텔링화와 사이버박물관의 콘텐츠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IV. 맺음말

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은 국가의 역사와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서양고지도의 기본적인 특징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다양한 영역(고지도, 문학, 역사, 자연, 사진 등)에서 동해를 조망하는 전시콘텐츠로 구성하여 동해 재인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시 콘텐츠(원본전시, 패널전시, 영상전시, 체험전시 등)로 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해에 대한 시야를 확장하는 학술적 성과는 물론 전시에 대한 콘텐츠와 연구 출판물로 활용하는 다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서양고지도도를 활용한 전시콘텐츠는 문화유산을 전시 교육하는 박물관의 사회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활용한 박물관 교육은 우리의 청소년에게 문화유산에 대한 의식과 역사에 대한 균형 감각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역사적 사실 뿐 아니라 문화유

산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교육이다. 또한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재량활동과 방과 후 활동 및 5일제 수업이 진행되면서 사회과 현장학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콘텐츠 요소이다.

이에 서양고지도에 대한 전시콘텐츠 뿐 아니라 고려사와 동해 표기문제 등으로 주변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문화유산을 활용한 사회과 현장학습이나 교육프로그램 콘텐츠의 구성과 개발이 더욱 필요하다. 동해는 단순히 표기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의 미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장으로 올바른 표기가 정착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연구를 통한 동해학의 정립이 절실하다. 또한 남북 분단의 문화적 인식 차이를 극복하고 통일에 대한 문화유산 교육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동해안에 산재한 역사유적이나 명승지를 비롯한 인문학적 자료들을 문헌적으로 스토리텔링화하고 역사와 자연이 국토인식과 어우러진 종합적인 콘텐츠의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일반인들의 접근과 이해를 돕기 위한 사이버 공간의 전시 콘텐츠 구축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

앞으로 국가간 또는 문헌에 나타나는 동해에 대한 전반적인 해양의 역사와 지리적 명칭 등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와 후속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오일환, “16-17세기 서양고지도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섬형태 분석과 지리 인식에 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제21권, 제1호, pp.260-273, 2009.
- [2] 권선정, 최진성, “고지도를 활용한 지역지리 학습”,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제12권, 제3호, pp.483-496, 2004. 그리고 이상균, “고지도의 지리 교육적 활용 방안”,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제12권, 제1호, pp.127-147, 2004.
- [3] 최지연, 이익수, “고지도를 활용한 도시관광 콘텐츠 개발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7권, 제10호, pp.274-282, 2007.
- [4]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Antique maps and*

Korea 고지도와 한국, 경희대학교출판국, pp.9-15, 2008.

- [5] 오일환, “16-17세기 서양고지도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섬형태 분석과 지리인식에 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제21권, 제1호, pp.265-269, 2009.
- [6] 오일환, “서양고지도의 ‘동해Sea of Korea’표기와 유형의 변화”, 국제지역연구, 제8권, 제2호, pp.167-186, 2004.
- [7] 이상태, “고지도가 증명하는 독도의 영유권”, 한국지도학회지, 제9권, 제2호, pp.38-58, 2009.
- [8] 오일환, “18세기 서양고지도에 나타난 우리나라와 제주도”, 문화역사지리, 제16권, 제1호, pp.113-123, 2004.
- [9] 오일환, “서양고지도의 우리나라 반도형태와 한중 경계인식에 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4호, pp.327-356, 2010.
- [10]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동해의 역사와 형상-고지도와 함께하는 동해이야기*, 경희대학교출판국, pp.34-42, 2009.
- [11]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Sea of Korea: 고지도와 동해*, 경희대학교출판국, pp.140-143, 2004.
- [12]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동해의 역사와 형상-고지도와 함께하는 동해이야기*, 경희대학교출판국, pp.105-137, 2009.

저 자 소 개

오 일 환(Oh-Whan Oh)

정희원

- 1984년 2월 : 경희대학교 사학과 (문학사)
- 1988년 2월 : 경희대학교 대학원 사학과(문학석사)
- 1997년 1월 : 中國 南開大學 대학원(역사학박사)

▪ 2002년 ~ 현재 :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학예실장/학부대학 조교수

<관심분야> : 역사지도학, 한중사회사, 중국박물관학

이 승 수(Seung-Su Lee)

정회원

- 1990년 2월 : 한양대학교 국문과
(문학사)
- 1992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국문과(문학석사)
- 1998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국문과(문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인문지리, 고전서사, 문학의 역사성